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부제

김진욱 / 창원대 산업공학과 교수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 체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제의 도입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이 학부제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복수전공 취득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도 마련해놓지 않고 유사계열의 학과들을 묶어 학부라고 이름지음으로써 '학부제 = 학과 통폐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며, 교육개혁에 대한 거부감마저 낳고 있다.

이러바 교육소비자 중심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부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학부제라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1. 서론

지난해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이 입시제도만 바꾸던 미봉책이라면, 이번의 교육정책은 세계화·정보화를 목표로 한 교육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란 점에서, 또 교육정책을 추진할 비용도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학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획일적인 통제정책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대학들

에게는 반가운 일인 것이다. 특히 수십 년간 이류 대학이라는 듣기 싫은 이름을 달고 다니던 대학들은 불명예를 씻고, 경쟁을 통해 우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들이 대학교육 체계를 특성화하고 다양화시켜 경쟁력 있는 대학 만들기엔 전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가장 진통을 겪는 것은 학과 통폐합과 학부제의 추진인 것 같다. 이것은 학과 통폐합을 하는 것이 학부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학부제를 추진할 때, 구성원간에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부제란 이것이다’하는 명확한 모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부제 모형이 강요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밖으로는 세계경제전쟁의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교육 수요자 중심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은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바람직한 학부제의 모형도 만들어질 것이다.

2. 소비자 중심 시대의 교육 서비스 산업

대학은 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투입물이 되어 대학의 교육과정이라는 공정을 거침으로써 학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체계로서 교육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수십 년간 대학 지원자들이 대학 정원을 훨씬 넘어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인 대학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더구나 대학만 졸업하면 남은 인생이 보장되는 듯이 매년 수십만 명이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려는 그릇된 교육열이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대학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즉, 대학이라는 간판만 내걸어도 입학하려는 수요자(학생)들은 얼마든지 있었기에, 대학은 망할 염려가 없는 독점기업으로서, 소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나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

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체제는 이사장이나 총장 중심의 관리자 중심시대에서 교수진 중심시대로, 그리고 지금은 소비자 중심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과거 3 대 1 이상이던 4년제 대학 입학 경쟁률이 올해에는 1.9 대 1로 떨어졌다(『조선일보』, '95. 9. 24). 고교 졸업생의 자연감소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에는 전체 대학의 진학 경쟁률은 1점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설립에 준칙주의가 적용되고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대학의 문이 더욱 넓어지게 될 전망이며, 특정 목적을 위한 기업들의 대학 설립도 가증될 것이므로 그 시기는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고품질 교육 서비스가 우리나라로 진출한다면 교육 서비스 시장에도 세계경제대전환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것이다.

병원이나 금융기관처럼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은 투입물이 그 생산체계에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최종 수요자가 되지만, 교육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를 기업에서 채용하여 다른 산출물의 생산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재 산업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시장에는 대학 지원자라는 교육 서비스의 직접 소비자와 기업이라는 간접 소비자가 존재하므

<표 1> 고등교육 진학 경쟁률 변화 추세

연도	전체 고교 졸업자: 전체 대학 정원	인문계 고교 졸업자: 전체 대학 정원
1995	1.38 : 1	0.84 : 1
2000	1.21 : 1	0.60 : 1
2005	0.55 : 1	0.27 : 1
2010	0.38 : 1	0.19 : 1

* 자료 : 『조선일보』, 1995. 6. 3, 4면.

로 양쪽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대학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간접 소비자가 바라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학사제도는 직접 소비자들에게도 바람직하므로 교육 서비스의 직·간접 소비자의 요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명문 대학 졸업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기도 하고 전문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4년제 대학을 압도하는 등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이 대학 지원자의 수를 초과하여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인기보다 개성과 적성을 중시하는 개인 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에 교육 서비스 시장에도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3. 교육 서비스 소비자들의 요구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직접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이 배울(소비할) 전문분야에 대한 선택의 제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기 못하고 입학하였다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바꾸려고 한다면, 현재의 학사제도로는 학과 정원 제한과 동일계 내에서만 전과 허용 등의 제약 때문에 자퇴를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에 다시 입학할 해야 할 정도이다. 전공 선택의 자유라는 요구는 학과의 정원을 유연하게 책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경영은 제품을 생산한 후 불량품을 가려내는 품질관리시대 아니라 불량품을 애당초 만들지 말자는 품

질경영시대이다. 대학도 전과가 필요 없을 정도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간접 소비자인 기업에서는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것은 대학 졸업자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품질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이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조선일보』, '95. 6. 16). 현대의 생산기술이나 관리기능은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데, 대학교육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교육내용이 이론에 치우쳐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에는 기계공학의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기술도 이해하는 인력이어야 설계나 생산에서 적응력이 높게 되는 것이다. 산업공학도는 생산성 향상의 기법은 알고 있지만,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부족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에 현장 적응력이 미흡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교수신문』, '95. 6. 15).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은 “전자공학과 출신자를 데려다 기계공학을 가르쳐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재교육시키기는 어렵다.”며 대학에서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대기업의 이사는 “복수전공자라면 전형 없이 바로 채용할 수 있다.”며(『교수신문』, '95. 12. 4) 복합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는 복합학문의 실용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용인군 기흥에 설립되어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

〈표 2〉 삼성경영기술대학 전공교과 구성

학 과 명	교 과 구 성
기계금형과	기계(70%) + 전자(30%)
메카트로닉스과	기계(50%) + 전자(50%)
응용전자과	기계(30%) + 전자(70%)
정보통신과	기계(20%) + 전자/통신(40%) + S/W(40%)
마케팅과	판매기술(50%) + 시장조사/광고/판촉(50%)

* 자료 : 삼성경영기술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한 삼성경영기술대학의 전공교과 구성을 보면 기업에서의 복합학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기술경영, 금융공학, 환경경영 등과 같은 복합학문으로 고급 인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연간 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복합학문의 전문교육을 이곳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생산체제와 밀접한 응용학문인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대부분의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방대학, 학부중심의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은 교육개혁 방향을 복합학문 교육의 실현에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 소비자들의 요구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자유, 진리, 창조, 정의 등의 대학교육 이념을 바꾸라는 요구는 아니다. 즉, 소비자 중심시대에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적 낭비를 없애고,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책임을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편입학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서 올해 편입학 예정 인원을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선일보』,

'96. 1).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은 대학교육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꿈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4. 학과제·학군제·학부제

우리나라 대학이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학과 중심의 학사제도에는 전과제와 부전공제가 마련되어 있다. 전과제는 전공 선택의 자유를, 부전공제는 부분적이거나 복합학문의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을 뿐이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극소수가 다른 학과로 옮기는 기회를 가질 뿐이며, 대부분은 마지못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 학과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전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이것은 대학교육을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아무 학과나 손쉽게 입학하였다가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몇몇 학과는 학생 없는 학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기존의 부전공제를 활성화하면 학과제에서도 복합학문에 대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학과와 부전공으로 택한 학과의 수업시간이 겹쳐서 부전공 과목의 이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전공제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복합학문의 필요성은 최근에 나타난 학문적 추세는 아니다. 현대의 생산체제에 여러 학문의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면서 대학은 지금까지 그런 필요성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예를 들면, 정보공학과 통신공학의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에 대학은 정보

통신공학과를 신설하였고, 컴퓨터 지원 설계나 제조의 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정밀기계공학과를 개설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여 왔다. 또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전자공학과 재료공학의 지식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였고, 대학은 전자재료공학과를 개설하여 사회적 요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필요 인력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생산체제에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면 4, 5년 뒤에나 기술인력이 배출되며 국민의 병역의무를 감안하면 그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다.

둘째,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그와 관련된 학과가 모두 설립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필요 인력이 미미한 분야는 그에 관련된 학과의 설립이 어려워 기술인력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 분야는 화학공학, 전기공학, 작업안전, 소방안전, 인간공학, 환경공학 등 공학 전 분야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인력수에 비하여 학과 설립의 경제성이 없어 학과 설립에 대학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셋째, 복합학문은 대개 첨단기술 분야에 속하므로 그에 관련된 학과의 설립은 유사한 전통적 학과를 구식 학문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결국은 전통적인 학과도 첨단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게 되고, 두 학과는 비슷한 교육과정을 갖게 되면서 학과 세분화로 '세 불리기'란 오해를 받게 된다.

넷째, 사회적인 요구가 큰 복합학문의 학과는 인기학과이므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과 설립을 앞다투게 되어 인력 공급이 넘치게

되고, 이미 설치된 학과를 폐지시키기도 쉽지 않아 인력수급 정책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복합학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전통적 학과에서 세분화되어 설립되는 학과 제로는 소비자 중심시대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학과를 학군으로 묶어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학군제가 있다. 학군제는 '70년대 말에 몇몇 대학에서 시행해 보았지만, 실패한 계열별 모집제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유사계열의 학과들을 학군으로 묶어 신입생의 모집은 공동으로 하고, 2~3학년 진급시에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학과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앞에서 언급한 학과제의 단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학군에 입학한 학생들은 1~2년의 기간 내에 자신이 속한 학군 내에서 적성에 맞는 학과를 탐색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학과 배분시에 학과 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강제적인 배정이 필연적이므로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과의 정원을 철폐하고 희망하는 학과로 모두 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학문의 시대적인 인기도에 따라 학과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어 전과가 자유로운 학과제에서처럼 파행적인 학사제도가 될 것이다. 학군제의 다른 장점은 학군 내의 유사과목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소비자 중심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은 아닐 것이다.

학군제 아래에서 복합학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로 창원대의 메카트로닉스공학군이 있다. 이 메카트로닉스공학군은 메카트로닉스공학이라는 복합학문을 전공하

면서 기계, 기계설계, 전기, 전자, 제어계측 공학 중에서 한 전공을 같이 이수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복합학문의 학과나 학군을 설치하면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이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복합학문의 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특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소규모 단설대학 설립시에는 바람직한 학사제도가 되겠지만, 학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종합대학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올해 학부제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은 82개교이다.¹⁾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들을 통합하거나 유사계열의 학과들을 묶어 학부로 개편하고 있지만, 복수전공 취득이나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부제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없이 학과들을 묶어 학부라고 이름짓게 됨으로써 학부제는 학과 통폐합이라는 오해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합하여 약학부로, 기계공학과·생산기계공학과·기계설계학과를 묶어서 기계공학부로 하는 등 유사학과를 계열화한다든지 국문학과를 한국어문학부로 명칭 변경만 하는 것 등은 학과제나 학군제의 학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유사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효과 정도만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학과들을 묶어 학부라고 이름짓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었던 학과들을 통합하는 것이지 학부제 실시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²⁾. 유사계열의 통합이 학부제라는 오해는 1992학년도부터 서울대에서 전기·전자·제어공학과를 통합하여 학부를 구성한 것이 학부제의 모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육개혁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학문의 성격이 유사한 학과들을 통합하여 학부라 이름짓게 되었고, 학자들도 학부제의 추진을 학과 통합의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³⁾.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에 대학들이 ‘학부제란 이것이다’하는 유일한 모형에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학부제의 개편은 학문 영역의 벽을 헐어 학문 교류를 증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과 학문 연구라는 대학의 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5. 소비자 중심의 학부제 구성

소비자 중심시대에 적합한 학사제도는 교육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복합학문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사계열의 학과들을 묶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복합학문을 구성하기 쉽도록 전공분야를 모아 학부로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전공 입학’이나 ‘전공선택 입학 후 전공 변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96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자료집』, 1995. 11, 317~348면.

2) 신양근,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1996/1·2(79호), 17~23면.

3) 민홍식·권옥현, “학부제—그 장점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공학기술』, 제2권 4호, 1996. 2, 62~71면; 이정규, “학부제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같은 책, 72~83면.

경의 무제한 허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들어가고 보자' 식의 혼란을 일으켜 대학교육이 더욱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또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전공개론 과목이 교양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기계공학에 소속한 학생이 산업공학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계의 전공들로 학부를 구성하여 전공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 공학인지, 예술인지, 어학인지를 모르는 대학 지원자는 극소수이므로 이런 학생은 전공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학부의 학생정원 내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종합대학에서 복합학문의 학과를 개설하여 복합학문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경영대학, 정보통신대학, 세계화경영대학 등과 같이 특성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소규모 단설대학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학문 교육보다 다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종합대학에서는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유사한 학과들로 학부를 구성하고, 어떤 전공이라도 복수로 이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대학 지원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 내에서 유사한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는 것을 다양한 복합학문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 생산공학, 기계설계공학으로 구성된 기계공학부에서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을 복합학문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전의 기계공학과 졸업생보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배웠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기계공학 전공자인 것이다.

교육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복합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육 설비나 교수진을 지금보다 두 배는 늘려야 가능할 일이다. 기존의 교육 능력에서 복수전공의 이수가 가능하게 하려고 어떤 대학은 복수전공 허용 자격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소속 전공에서 평균 평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에게만 복수전공 선택을 허용하는 등으로 제약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소비자 중심시대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평가제도 준비나 교육비 차이 해소 등의 난제 외에도, 소비자 중심시대에는 사라질 입학시험을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들에게 다시 치르게 하는 모순이 생긴다. 전공 선택의 적성과 별로 상관이 없는 교양과목의 성적으로 복수전공의 기회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려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그다지 맞지 않는 전공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학생에게만 복수전공의 기회를 허용하는 이러한 제약은 비교육적이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시대에 소비자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학부의 구성은 전공분야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복합학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밀기계+전기+전자 또는 기계+재료+산업 등과 같이 학부를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학부에서는 단수 전공을 택한 학부생은 전문성이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복수전공을 택한 학부생은 복합학문을 실질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부의 구성은 그 대학의 교육목표와 사회적인 기술인력 수요 및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전공선택과 복수전공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부에 포함되는 전공의 수는 3~5개로 하여 전공과목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의 복수전공 선택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1~2년의 교양 및 학부 공통교육과정을 수학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전공을 스스로 찾게 된다. 각 전공분야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규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복수전공이나 세 가지 전공의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기존의 학과제에서와 같은 전문성이 깊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전공분야에 따른 정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전공분야에 배정해야 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이 소속한 학부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지 못한다면, 타학부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제에서도 인기 있는 전공의 교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과제나 학군제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듯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중심시대에는 어떤 제도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현상이다. 그러나 학부제는 한 학생이 복수전공을 택하게 된다면, 교육 서비스

의 수요자가 창출되므로 교과목 폐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부제에서는 학부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취득해야 할 전공이 수학적점과 졸업학점을 축소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 수준의 과목은 개설을 지양하고, 유사과목은 통합하는 등 전공과목의 개편도 필요할 것이다. 또 전공 개설과목의 축소로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과목 내용은 전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실험실습이나 사례연구 등을 보강하여 현장 적응력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재개발과 강의 내용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전공과목 개설수가 소폭 축소되지만, 교과목의 강의 수준은 과거보다 강화되므로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교수가 말아야 할 과목은 학기당 2과목 정도로 축소되고 교원 충원도 있어야 한다.

6. 결 론

능력보다는 출신학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던 기업의 인사제도도 바뀌고 있다. 무자료 면접이니, 능력 위주 선발이니 하면서 기업들은 세계경제전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일류 상품을 제공하고 일류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하려는 대학 지원자들이 얼마든지 있어 정원만 불러 가면 되었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대학 경영은 교육산업의 독점 시대애나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대학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지원자들이 없다면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전공선택권을 줄 수 있고 복수전공이 가능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간접 소비자인 기업에 복합학문을 이수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중심시대에 적합한 학사제도가 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부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학부제라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

김진욱/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창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연구부실장을 맡고 있으며, 일본 동경공업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다. 주요 논문으로 "A Breakeven Procedure for a Multi-period Project" 외 다수를 발표했다.